

HYUNDAI E&C TODAY



ART+H

Colombia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자연과 어우러진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

The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project is aimed to have a treatment capacity of 430,000 tons per day. Since its operation began in October 2018, the facility has greatly improved the living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Hyundai E&C transformed the construction site about 420,000 square meters into a large, eco-friendly rest area, enabling the local residents to enjoy more pleasant living environments. As a result of such efforts, apartment buildings and various facilities were built in the neighboring area, which changing the overall landscape of the city. ◀ Continued on page 4, 5

엄중한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을 맞대고 있는 남미의 숨은 보석, 콜롬비아.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후한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이곳에 현대건설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현대건설의 콜롬비아 첫 진출 프로젝트인 '베요 하수처리장'은 일일 처리용량 43만(최대 56만t)의 생활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하수처리장은 지저분하다는 통념을 깨고 지역 주민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13만 평(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 현장 부지를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가꿨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이곳은 아파트와 각종 시설물이 잇따라 들어서며 도시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 관련기사 4, 5면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주택 명가’ 현대건설, 국내 수주 속도 낸다



Godeok and Gangil District Block 5

Hyundai E&C's consortium for the Godeok and Gangil District Block 5 was selected as a winner in the designing competition on June 16, beating renowned domestic builders. Our company's design was well received by suggesting a new type of residential space: We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being closed and uniformity inherent in the conventional apartment buildings and combine flat-type and tower-type apartment designs.

The Godeok and Gangil District Block 5 project valued at 618.2 billion won consists of 809 units.

고덕·강일지구 5블록 현장 설계공모 당선

우리 회사가 서울의 마지막 택지 지구인 고덕·강일지구 5블록의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당사 55%, 계룡건설산업 45%)은 지난 6월 16일 6차전으로 치러진 설계공모에서 유수의 건설사들을 제치고 고덕·강일지구 5블록의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회사는 기존 공동주택의 폐쇄성·획일성에서 벗어나 저층의 환상형과 고층의 탑상형을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주거 공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지구(1~2블록), 2지구(3~8블록), 3지구(9~14블록) 총 1만1560가구 규모가 분양 예정인 고덕·강일지구는 서울 지역의 마지막 공

공택지인 데다 분양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입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우리 회사가 수주한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대의 4만8230㎡ 터에 공동주택 809세대(전용면적 84㎡ 564세대, 101㎡ 245세대)를 짓는 것으로, 매출액은 6182억원 선(당사분 약 3400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발주처(SH공사)가 제시한 ‘소셜 스마트단지 조성’이라는 신개념 주거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건축기본 계획안으로 이번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었다”며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녹여내 서울 동남권의 핵심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pjeong Jugong No. 835 in Pyeongtaek

Our company solidified its position once again in the domestic city maintenance construction market by receiving the 375.9-billion-won redevelopment project.

Our company was chosen as a contractor to redevelop the Hapjeong Jugong No. 835 area in Pyeongtaek,

Gyeonggi-do.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designed to redevelop the Mokhwa Jugong Complex 1 and Hapjeong Jugong Complex 2.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s expected to provide 1,944 apartment units of 17 buildings with two basement levels and 35 floors above the ground.

경기 평택 합정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권 확보

우리 회사가 최근 3759억원 규모의 경기도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도시 정비 시장에서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현재까지 수주한 도시정비사업 총액은 총 1조2000억원(6월 27일 기준)으로, 상반기 ‘수주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회사는 6월 22일 경기도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시공사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평택시 합정동 목화주공 1단지와 합정주공 2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준공과 함께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1944세대로 탈바꿈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일감은 좋고 경쟁자는 점점 늘고 있는 치열한 수주전에서 얻은 뜻깊은 결과”라며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된 인천 화수화평 재개발 사업 시공권까지 확보하면 상반기 도시정비 분야 ‘수주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 초 ‘경기 과천 주암정군마을 재개발’을 시작으로 강남 대치·강서 등촌 재건축 등을 연달아 따내며 수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현대건설의 브랜드 신뢰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울 주요 사업장은 물론 수도권·지방 등 알짜 정비사업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8년6개월 만에 관통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보령해저터널’이 8년 6개월 만에 뚫렸다. 해수면에서 최대 깊이는 80m(해저면에서 55m)로 해저터널 길이만 6927m다.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다.

보령과 원산도를 잇는 이 프로젝트는 상·하행 4차로 분리 터널로,

2012년 11월 보령 및 원산도 방향에서 터널 굴착공사를 시작해 상행선(원산도 방향)은 지난 2월 20일 관통했고, 이번엔 하행선(보령 방향)을 관통해 양방향 굴착을 마쳤다. 추가 공사 후 2021년 말 완전 개통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통행시간이 현재 9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상의 터널을 뚫을 때와 달리 해수면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저터널은 토목공사 중에서도 높은 난도의 건설 기술로 꼽힌다. 우리 회사는 해수 유입 사고 없이 당초 설계대로 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을 입증했다.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협력 협약 체결

우리 회사가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MOU를 통해 관련자들은 ▶저에너지 신기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저에너지 테마 모델의 마을 조성 ▶제로 에너지 기술로 통합·관리되는 미래 주거단지 구

현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제로 에너지 주택단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대건설의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이번 조치원 상리 활성화 계획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분양

우리 회사가 과천에서 처음으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단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7월 중에 분양하는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2개 동으로 이뤄졌다. 오피스텔과 색션오피스는 각각 별개 동으로 조성해 독립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동은 지상 24층, 전용면적 69~84㎡, 319실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의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며 상업시설과 공공기관·교육시설이 밀집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4년 연속 완주



현대자동차 고성능 N의 전 라인업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펼쳐지는 내구레이스에서 4년 연속 완주에 성공하며 우수한 경주 성능을 증명했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차량 ‘벨로스터 N TCR’ ‘i30 N TCR’ ‘i30 파스트백 N’은 6월 20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독일에서 열린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ADAC Zurich 24h Race)’에 출전해 각 종합순위 45위, 94위, 97위로 완주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55대의 차량이 출전해 102대 만이 완주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칸 광고제 은사자상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신기술 캠페인 ‘조용한 택시(The Quiet Taxi)’ 영상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축제인 ‘2019 칸 라이언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은사자상(Silver Lions, 이하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칸 국제 광고제 은상 수상은 현대자동차그룹뿐 아니라 한국자동차 업계 최초다. 칸 국제 광고제 심사위원회는 시각과 촉각을 이용해 청각장애인을 돕는 캠페인 영상이 소비자들의 높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장부서 소식

힐스테이트 운영 ‘2019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수상



힐스테이트 운영의 ‘H Blue Playground’ 놀이터가 아시아 대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2019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 회사는 국내 공동주택 작품 중 유일하게 전체 응모작 가운데 상위 10%에만 수여하는 ‘위너(Winner)’로 선정됐다. ‘H Blue Playground’ 놀이터는 파도의 물결 모양을 모티브로, 크고 작은 마운딩과 안전한 그물망 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보다 근본적인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Aladdin' reaches unbelievable heights once again

Jun 18

"Aladdin" wrestled its position atop the box office charts back from "Parasite" over the weekend after a two-week hiatus.

The live-action remake finally climbed back to number one this weekend after more than 1 million moviegoers saw the movie at 1,409 screens according to data from the Korean Film Council. The film reached number one in its release week, but fell after Palme d'Or winning "Parasite" was released the following weekend.

The popularity of the film is especially notable as its box office sales have surpassed those of "Beauty and the Beast" (2017), another live-action Disney flick that was popular among local audiences and sold a little over 5.1 million tickets. "Aladdin" has sold 5.3 million admission sales as of Sunday, making it one of the top three most successful musical films in Korean cinema history, after "Frozen" (2014) which sold over 10.2 million tickets and "Les Miserables" (2012), which sold about 5.9 million tickets. The reasons for its popularity varies, but one major factor seems to be that the film can be enjoyed by all generations. Audiences have also praised the exceptional singing talents of the film's two stars Mena Massoud and Naomi Scott.

Although director Bong Joon-ho's "Parasite" didn't fare as well as the Disney musical over the weekend, an estimated 690,000 people saw the film at 1,205 screens, bringing it to second place for the weekend. Since its release, a total of 8.3 million tickets have been sold for the acclaimed work. About two families from opposite ends of the socioeco-



Disney's musical "Aladdin" reclaimed the top spot at the weekend box office from director Bong Joon-ho's acclaimed "Parasite."
[WALT DISNEY COMPANY KOREA]

nomical ladder, Bong leaves audiences pondering about the social hierarchies in a capitalist society which gives the poor no choice but to depend on the rich for their survival.

The film followed up its win of the Palme d'Or award at the 72nd Cannes Film Festival, with taking home Sydney Film Prize - the Sydney Film Festival's top award - on Sunday. Bong personally attended the closing ceremony at State Theatre in Sydney, to receive the trophy and the prize money of 60,000 Australian dollars (\$41,300).

"Men in Black: International" took the third spot on its debut week with 440,000 admissions sold through 1,055 screens. The lead roles are played by familiar faces from the Marvel films - Tessa Thompson and Chris Hemsworth. Men in Black's branch in London, a top secret service with a mission to protect the Earth from alien invasions, recruits a new female spy

named Agent M (Thompson) and pairs her up with one of the top agents of its branch, Agent H (Hemsworth), in order to destroy a group of aliens known as The Hive. These aliens are shape-shifters that can take on whichever form they want, including the branch's own agents. To extinguish The Hive from Earth, the pair travels around the globe to once again protect their world from outside forces.

The fourth spot was taken by animated film "The Pilgrim's Progress," an adaptation of the classic religious story by John Bunyan of the same name. The faith-based animated adventure was seen by 57,000 moviegoers at 381 screens. About an ordinary man's struggle to seek deliverance for his sins, the Christian allegory seemed to resonate with the local audiences eager to see the tale on screen.

By KOREA JOONGANG DAILY

92 percent of Koreans are now living in urban areas

Jun 25

Almost all Koreans live in cities, which occupy only a small portion of the nation's total a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Urban Planning 2018, published jointl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91.8 percent of Koreans, or 47.59 million people, were living in urban areas, which only take up 17,789 square kilometers (6,868 square miles), or 16.7 percent, of usable land area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The country divides its land by use—urban areas, managed areas, natural preserves, and farms and forests—in order to carry out its planning initiatives. Of the categories, urban areas take up 16.7 percent of the country, while farms and forests occupy 46.5 percent, followed by 25.6 percent for managed areas and 11.2 percent for preserves.

Although the urban areas increased 0.9 percent in size and managed areas grew 0.2 percent from 2017 to a year ago, natural preserves lost 0.2 percent.

Within the urban areas, residential areas

increased 0.5 percent, while commercial areas grew 1.1 percent, and industrial areas expanded 1.4 percent. As of end of last year, Korea's urban areas were divided into residential areas (15.1 percent), commercial areas, (1.9 percent,) industrial areas (6.7 percent) and green zones (71 percent).

The proportion of Koreans living in cities has steadily grown over the years. While only 39.15 percent of Koreans lived in urban areas in 1960, the number broke 80 percent in 1990 and went above 90 percent in 2005.

By KOREA JOONGANG DAILY

Sophisticated and Sporty: The All-New Kia Seltos

The new Kia Seltos brings sophistication, assertiveness and cutting-edge technology and safety features to the global compact SUV segment. Kia revealed the Seltos for the first time globally today at a special event in Delhi, India.

The Seltos is characterized by distinctive design details, lending the compact SUV an air of understated sportiness. It combines forward-looking technical

features, class-leading space and a suite of world-class safety features.

Mr. Park Han-woo, President and CEO, Kia Motors Corporation, commented: "The Seltos is an important car for Kia as it will play a central role in the expansion of our global footprint, and especially in a priority market like India. We've adapted our strengths in design, quality and technology to fulfil the needs of customers in the Indian market."



Hyundai Finishes as the Second-Highest Non-Premium Brand in J.D. Power's 2019 U.S. IQS

New-vehicle quality across the entire Hyundai lineup resulted in the company being ranked as the second-highest non-premium brand in J.D. Power's 2019 U.S. Initial Quality Study (IQS)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Hyundai owners reported three fewer problems per 100 vehicles (PP100) than in 2018 as Hyundai also maintained its third overall ranking with a significant 12 PP100 fewer than the fourth place brand.

In the model segments, the all-new Hyundai Santa Fe received the mid-



size SUV award and was one of only three vehicles to win one of the 21 segments in its launch year. Hyundai's entire lineup performed well with Tucson, Elantra, Accent and Veloster all finishing second in their respective segments, while Kona and Sonata each were third.

10 Minute Korean Lessons

At a Korean barbecue restaurant

We will have two more servings of samgyeopsal please!

삼겹살 2인분 더 주세요!

Sam-gyuhp-ssahl ee-een-boon
daw joo-seh-yo!

Samgyeopsal is three layer pork belly. It is high in fat and low in protein.

▶ Related phrases

May I eat now?
이제 먹어도 돼요?

Ee-jeh maw-gaw-do
dweh-yo?

Yes, You may now eat.
네, 이제 드셔도 됩니다.

Neh, Ee-jeh deu-shyuh-do
dwehm-nee-dah.



In Korean restaurants, you often see food being cooked in a pot or on a grill at the table where you sit. A waiter/waitress will cook it for you, and when the food is ready to be eaten, he/she will let you know. If the restaurant is too busy and the waiter/waitress forgets to take care of your food, and you do not know what to do, just ask one of the waiters/waitresses if the food is ready by saying,

"이제 먹어도 돼요?"
[Ee-jeh maw-gaw-do dweh-yo?]

▶ Other expressions



Skirt steak
갈매기살
gahl-meh-gee-ssahl

Pork neck
항정살
hahng-jawng-ssahl



Pork cheek
가브리살
gah-beu-ree-ssahl

Ogyeopsal
오겹살
o-gyuhp-ssahl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콜롬비아 첫 프로젝트, 친환경 하수처리장을 완성해내다



1 콜롬비아 벨로 하수처리장 현장. 2 계란형 소화조 탱크의 보온재 및 알루미늄 커버 시공 모습. 3 근로자들이 기자재 현장 시험(Field Test)을 하고 있다. 4 유입 펌프장 시설. 5 현장은 계란형 소화조 탱크의 시공 단축을 위해 200t 크레인을 사용했다. 사진은 크레인으로 소화조 철관을 인양하는 모습.

Zoom in

총 14회 450여명 참석!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설명회' 개최



공사 초기만 해도 현장 인근에는 주택이 많지 않았다. 콜롬비아 정부는 '친환경 하수처리장'이란 타이틀로 벨로 하수처리장을 적극 홍보했고, 이후 인근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며 주민 수도 늘어났다. 분진과 소음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공사 과정에서는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시운전 기간이었다. 통수 후 4개월가량의 시운전 기간에는 필연적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 현장은 발주처와 함께 시운전 한 달 전부터 지역 주민 45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회가량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악취를 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수 후 4개월가량 악취가 발생하자 민원이 쇄도했다. SNS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면서 집단소송·시위 분위까지 조성됐다. 현장은 매일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찾아가 설득했다. 시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주시했다.

시운전 4개월 후 악취만 제대로 악취가 사라지지 민원도 자연스레 없어졌다. 현재 현장은 인근 주민에게 O&M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콜롬비아 벨로 하수처리장 현장

콜롬비아 제2의 수도 메데인에서 25km 떨어진 안티오quia(Antioquia)주 벨로(Bello)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에 우리 회사 콜롬비아 벨로 하수처리장 현장이 있다. 우리 회사가 수주한 두 번째 중남미 프로젝트이자 콜롬비아 건설시장의 문을 열어준 이 현장은 착공 후 81개월 만인 오는 6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글=박현희 / 현장 리포터·이현재사원

콜롬비아 벨로 하수처리장은 우리 회사가 신시장 개척을 위해 2010년 콜롬비아 보고다 자사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수주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다. 2000년 9월 브라질 포르토 벨로(Porto Velho)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이후 12년 만의 중남미 재진출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콜롬비아는 풍부한 수자원에 비해 물 가용성이 떨어지고, 하수처리 시스템 등 수질 관리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 발주처인 메데인 공공사업청(EPM, Empresas Publicas de Medellin)은 아부라(Aburra) 협곡의 하수 처리와 메데인강 정화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우리 회사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더불어 풍부한 플랜트 운영(O&M, Operation&Maintenance) 실적을 보유한 스페인 엔지니어링과 아쿠아(Acciona Agua)와 공동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수처리 전문 건설사로 구성된 11개의 컨소시엄과의 경쟁 끝에 가격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가진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45%, 악시오나 아쿠아 35%, 현대엔지니어링 20%)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공사의 골자는 ▶전처리(협잡물 및 모래 제거)



시스템 ▶수처리(두 차례 침전을 통해 침전물과 부유물 제거) 시스템 ▶슬러지 처리(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침전물 건조 및 방출) 시스템 ▶에너지 재활용(슬러지 처리 중 발생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스템 등 하수처리 시설물과 운영동 및 시민 광장을 짓는 것이다.

현장은 산업·상업·주거 용수에서 발생한 유기오염물질(BOD)이 하루 평균 1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초당 5㎥의 유량(하루 43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오염부하량(오·폐수 중 포화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의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 활성 슬러지(Activated Sludge Process) 방식을 택했다. 활성 슬러지란 하·폐수 속 각종 유기·무기물이 미생물과 섞여 만들어진 플록(Floc) 집합체로, 자연 발생한 혼합 미생물이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섭취하고 분해한다. 이는 점에서 일반 슬러지와 다르다.

2012년 9월 착공한 현장은 ▶2013년 3월~2014년 12월 지중 연속벽 시공 ▶2014년 5월~2015년 7월 유입 펌프장 시공 ▶2013년 9월~2017년 8월 소화조 시공 ▶2017년 4월 8일 본 전선 수전 ▶2018년 3월 22일 하수 통수(유입펌프 테스트) ▶2018년 10월 20일 시운전 및 설비 운영·관리(O&M) 착수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30일 준공 예정(O&M 기간은 10월 19일까지)이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하수처리장

콜롬비아는 최신허 기술력이 집약된 친환경 시설로 건설됐다. 특히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은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가 소화(消化)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주로 메탄)를 전력 에너지로 전환한다. 생산된 전력 에너지는 벨로 하수처리장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의 30%를 담당하게 된다.

현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정은 하수 슬러지 용적을 최소화하는 여섯 개의 소화조 탱크 설치다. 소화조는 소화 온도에 따라 상온(15~20도)·중온(30~37도)·고온(55~65도)으로 나뉘는데, 벨로 하수처리장은 중온 소화를 택했다. 또한 소화조 탱크는 하부에 슬러지가 많이 쌓이지 않고 슬러지 순환 시 효율성이 좋은 '계란형 소화조(Egg-Shaped Digester)' 형식이 적용됐다. 현장 직원들은 두께 15~30mm, 지름 23m, 높이 38m 규모의 계란형 소화조 탱크의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철판마다 변호를 부여하고, 철판 절단 전문 공장에서 기계가공(Machining)과 굽힘가공(Bending)을 진행했다.

시공 단축을 위해서는 절단단 철판 두 장(장 당 폭 2m, 길이 15m)을 자동용접(Automatic Welding)한 후 200t 크레인을 이용해 거처했다. 자동용접할 수 없는 연결 부위는 기술자가 수동으로 용접했다. 용접 물량의 약 50%를 자동용접한 결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했으며, 공기도 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의 '녹색 공원'이 되다

콜롬비아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만큼 공사 초기 시행착오도 많았다. 현장 직원들은 능숙하지 않은 스페인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발주처와 악시오나 아쿠아사와 일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어가 필수였던 것. 현장 직원들은 일과 후 스페인어 강사를 초빙해 일상 회화 및 공문 독해 수업을 받으며 실력을 키워 나갔다. 현지 직원들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극복해야 했다. 중남미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과 '아미고(Amigo, 친구 또는 동료)' 마인드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현장 직원들은 현지인 직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문화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현장은 공사 초기 환경 관련 인허가, 문화재 발굴 등으로 부지 인도가 예정보다 늦어져 착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발주처는 토목·건축의 기본설계를 수시로 변경했고, 변경된 설계를 확정하는 데도 2~6개월가량 소요됐다. 이로 인해 장비와 인력의 대기기간이 길어지자 후속 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전체 공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 우리 회사는 발주처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콜롬비아 벨로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확 바꾸어 놓았다. 현장은 42만9752㎡(13만 평)의 광활한 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과 전망대 등을 설치해 '공원' 같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다. 덕분에 현장 주변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지역 경제도 크게 활성화됐다.

현장은 지난 6월 4일 리카르도 로사노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우리 회사 주지사 토목사업본부 상무, 김유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 참석할 발주처 조지 런던 사장은 "더불어 오랜 숙원이었던 메데인강 수질과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됐다"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메데인강의 정화와 32만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콜롬비아 벨로 하수처리장,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콜롬비아 현장이자 성공적인 하수처리 프로젝트로서 그 이름을 당당히 울릴 날이 머지 않았다.

Hyundai E&C makes inroads into Colombian construction market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Hyundai E&C received a 350-million-dollar deal to build the Colombia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about two years after the builder founded its branch in Bogotá, Colombia, in 2010 in an effort to tap into new markets. The achievement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Korea's primary builder reentered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 market 12 years after it obtained the Porto Velho Combined Cycle Power Plant project in Brazil in 2000.

Colombia is rich in water resources. However, they are less available and the national wastewater treatment system is not capable of managing water quality. To deal with these, Empresas Publicas de Medellin (EPM) awarded the contract designed to treat wastewater dumped in the Aburra Valley and purify the water quality of the Medellin River.

The key of the project is to construct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a pretreatment system, a water treatment system, a sludge digestion system and an energy recovery system), an operation building and a public park for local residents.

The construction project began in September 2012 and is slated to be completed at the end of June this year.

The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comprises of cutting-edge technology-intensive, environment-friendly facilities. Above all things, the energy recycling system converts methane and other biogases,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sewage sludge digestion, into power by making use of power generators. The produced power will account for 30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power consumed for the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The construction site put its all-out efforts to build six digesters which can minimize the volume of sludge. To reduce possible construction errors in building egg-shaped digesters 15 to 30 millimeters thick, 23 meters wide and 38 meters high, the construction site numbered each steel plate and applied machining and bending processes for steel plate cutting.

In an aim to reduce the construction period, the construction site adopted automatic welding of two steel plates, two meters wide and 15 meters long for each, and then utilized a 200-ton crane to install it. Technicians manually welded where the automatic welding cannot be adopted. Because approximately the half of welding works were covered by the automatic welding, the construction site could secure excellent construction quality and cut down on the construction period by three months.

Moreover, the construction site overhauled the image of a sewage treatment plant considered a NIMBY (not in my backyard) facility. It transformed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site into a public park for the local residents by building a rest area and an observatory on the 429,752-square meter site. Thi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building estate in the neighboring area and apartment complexes, leading to greatly expanding the local economy.



Great People interview

32년차 환경 프로젝트 전문가 현장소장 김유실 부장



1988년 입사 후 싱가포르 해저 유류기지 공사 현장을 제외하곤 하수처리 공사만 맡아온 김유실 부장. 32년차 환경 프로젝트 전문가로 그간의 공사 경험을 인정받아 2017년 2월 현장소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월 4일 진행된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김 소장은 매끄러운 마무리를 위해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꼼꼼함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장 근무를 하며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단연 준공식이 개최되던 6월 4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니 '드디어 해냈구나!'라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남미 첫 환경 사업인 만큼 콜롬비아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현장을 발판으로 중남미 시장을 개척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현대건설 파이팅!"

신속한 대처, 현장의 능력자

공사팀장 장경오 부장대우
(現 베트남 요성 LPG Cavern 및 입출차시설 건설공사 현장)



2016년 4월 부임해 2018년 12월까지 벨로 하수처리장 공사팀장으로 근무한 장경오 부장대우, 공사 책임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현지 업체 관리였다. 대부분의 현지 하청업체들이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던 것. 생산성이 떨어지자 팀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과감히 청산하고, 몇몇 공종은 신속하게 작업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현지인 직원에게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건네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벨로 하수처리장 현장은 현대건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애써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중남미 지역통!

공무팀장 이재담 전문위원



스페인 마드리드대학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이재담 전문위원은 2013년 2월 경력직으로 벨로 하수처리장 현장에 첫 부임했다. 스페인어 실력자인 이 전문위원은 공무팀장으로서 통수 후 민원이 빗발칠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발생 원인과 대처 과정, 악취가 없지 않는 시간 등을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언어, 문화, 음식, 치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통고통락한 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직 중남미에는 메트로,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 지역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내길 바랍니다!"

현장의 전전후 후

공무팀장 김성진 과정
(現 도록애워사업실)



2013년 9월부터 약 4년간 공사와 공무파트를 넘나들며 근무한 김성진 과정. 스페인어가 가능한 그는 낮에는 현지인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퇴근 후에는 스페인어 회화를 공부하는 동료를 도우며 하루를 보냈다. 한국인 직원이 많지 않아 현장 분위기가 더욱 끈끈했다고 말하는 그는 현장의 갑초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경력직으로 입사해 첫 현장이었던 만큼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열정과 같은 '현대건설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죠. 지금은 본사와 현장 등으로 출퇴근이지만, 다시 한번 뭉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공식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A 비우고 채우기, 휴식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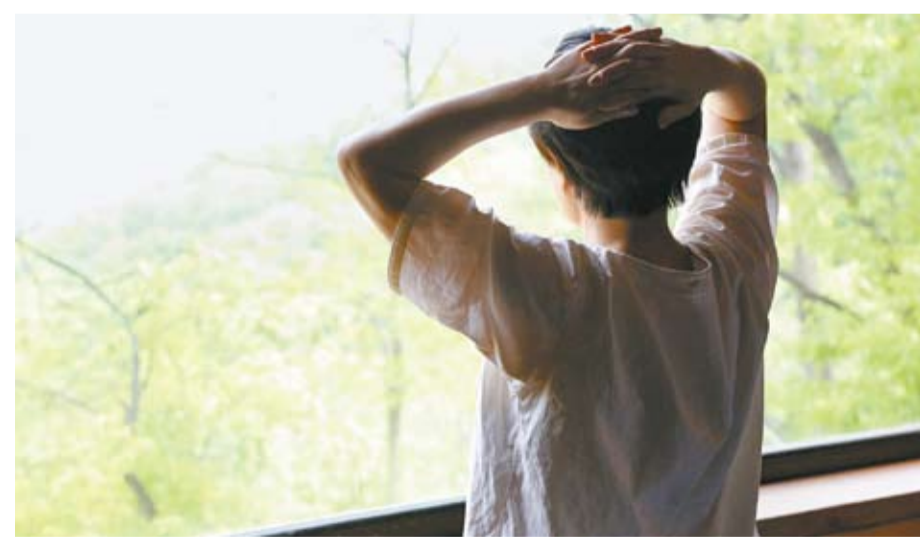
빌딩숲에서 듣는 도시 소음에, 현장에서 듣는 살피 소리에 지쳤다면 새소리가 귓가를 간질이는 자연으로 떠나보자. 켜켜이 쌓인 도시의 피로를 비워내고 신선한 에너지를 채우는 진정한 '쉼'을 위한 시간이다.



휴과 함께 자연과 함께 우프
우퍼(자원봉사자)와 친환경/유기농가 호스트(농장주)의 교류로, 우퍼가 하루 4~6시간 일손을 도우면 호스트는 숙식을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이다. 우프 멤버십에 가입(연회비 5만 원)하면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66여 개 농가에서 농촌을 경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친 환경적 삶의 철학과 문화를 나눌 수 있다. 문의 02-723-4458 www.woo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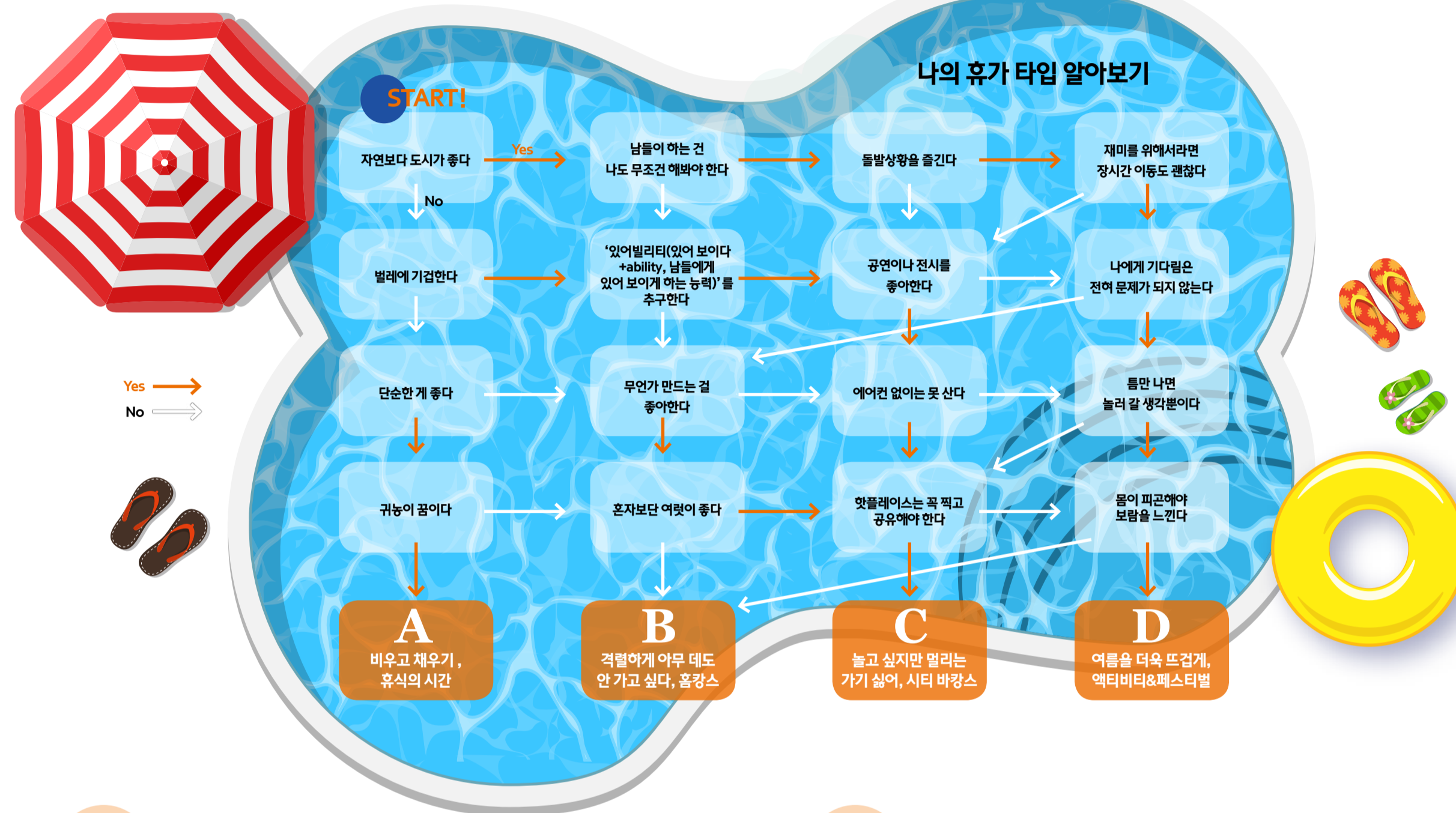


고택에서 즐기는 사유의 시간 **구름에**
고즈넉한 고택에서 마음의 시간을 채워 보는 것은 어떨까. 선선한 바람이 부는 뱃마루에 앉아 이곳저곳 시선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평온함 가득한 풍경과 하나가 된다. 리조트 내 북카페, 그림책 도서관에서 여유 있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전통 한옥의 건축미는 살리면서 화장실, 욕실 등은 현대식으로 보완해 투숙객의 불편함을 덜었다. 고택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
위치 경북 안동시 민속촌길 190 문의 054-823-9001 www.gurume-andong.com



멍 때리기 좋은 날 **깊은산속 우당삼**
자연 속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을 비울 수 있는 곳이 있다. 충북 충주 시 산속에 위치한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 우당삼'.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과 테마별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멍 스테이에 참가하면 주는 침묵배지를 달고 있으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선물해 보자.
위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우당삼길 201-61 문의 043-723-2033 godowoncenter.com

Play, Stay, Enj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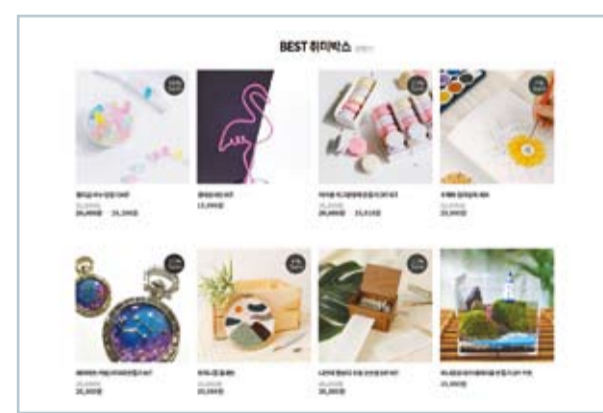


B 격렬하게 아무 데도 안 가고 싶다, 홈캉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 떠나려다 더 지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들의 진정한 휴가는 집에 있다. 스테이케이션의 정석, 홈캉스를 세상에서 제일 신나게 보내는 방법.

취미가 집으로 온다 **아비인더박스**

나가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몸이 근질근질한 당신에게 아비인더박스를 추천한다.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만큼 시간 '순삭'인 일이 있을까? 가죽공예, 조립, 도자기 페인팅, 네온사인 조립 만들기 등 다양한 아이템 중 끌리는 것을 골라 주문하면 집에서 편하게 작품 하나를 똑딱 완성할 수 있다. 이해가 필요한 키트는 홈페이지의 가이드를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편안하게 도전해 보자!
홈페이지 hobbyinthebox.co.kr



친구와 배달음식만 있다면 **보드게임**

루미큐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게임이다. 14개의 패를 나누어 갖고 족보에 맞는 순서대로 패를 내거나, 널 패가 없다면 하나 가져온다. 최종적으로 모든 패를 털어 버리면 승리.
스플렌더 입문용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스플렌더. 르네상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보석으로 카드를 모아서 15점의 승점을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
퀴리도 직관적인 규칙으로 진행되는 게임. 팀마다 1인씩 이동하거나 장애물을 놓으며 상대방보다 먼저 내 게임말을 상대의 진영으로 이동시키면 승리.



여름휴가 국내에서 120% 즐기는 방법

와우, 여름이다! 직역하는 태양 아래 그려보는 각자의 휴가 계획.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조금 색다른 일상에서 재미를 찾아봐도 좋다. 열심히 달려온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나만의 재충전 시간을 가져보자. 글=이진우

C 놀고 싶지만 멀리 가는 거 싫어, 시티 바캉스

사람에, 교통 체증에 차이는 휴가철 여행이 부담된다면 시티 바캉스를 추천한다. 시계바늘처럼 매일 똑같이 돌아가던 도시 생활은 잠시 안녕.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

서울 한복판에서 책, 음식, 편집숍을 한번에 **디스트릭트C**

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서점과 식음료, 상점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을지로입구역 부영빌딩 지하에 위치한 디스트릭트C는 서점 아르헨북,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펄글로스터, 카페 식물학-온디자이너-사오잔 등 식단이 한데 어우러진 취향저격 플레이스다. 특히 아르헨북은 DAILY, WEEKEND, INSPIRATION, STYLE 네 가지 테마로 책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위치 서울 중구 을지로 29 문의 070-8822-6489



프리미엄 바이닐 뮤직 바

파크 하얏트 서울 더 팀버 하우스
파크 하얏트 서울이 선보인 프리미엄 바이닐 레코드 바&레스토랑. 여름밤, 한국 전통의 멋과 모던한 디테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분위기에서 한잔의 여유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위스키, 사케, 와인, 시그니처 칵테일 등 다양한 주류가 아날로그 음악과 만나 낭만을 배가시킨다.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7시 30분~11시 30분에는 DJ가 바이닐을 재생해 더욱 풍성한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다. 파크 하얏트 서울은 7-8월 중 '호캉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름 패키지도 운영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6 문의 02-2016-1291 parkhyattseoul.com

영화와 음악, 미술과 커피가 있는 곳

복합문화공간에무(emu)
르네상스 시기 최대 인문학자로 꼽히는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에무. 지하 2층부터 루프탑까지 북카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카페가 집약돼 있어 한 건물에서 책, 음악, 예술, 커피, 도심 속 자연을 한번에 만끽할 수 있다.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위치 서울 종로구 경희궁1가길 7 문의 02-730-5515 www.emuartspace.com

D 여름을 더욱 뜨겁게, 액티비티 & 페스티벌

여름에 놀지 않으면 언제 또 놀아 보리요. 날이 뜨거워질까 바닷만 이틀이러만 주목! 여름이라 더 즐거운,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당신은 맥주가 땀보다 더 시원한가요? **잔 페스티벌**
제주의 푸른 바다, 뜨거운 태양, 신나는 음악과 더 신난 사람들! 맥주와 어울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조합이 당신을 부른다. 타부스 브루잉, 블루문브루잉컴퍼니, 제주맥주 등 5여 종의 맥주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제주 최대 맥주 페스티벌.
일시 7월 26(금)-28(일) 위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유림로 20 문의 064-766-3000 www.playcgroup.com



루지 타고 시원한 바람 가르기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루지 타고 스피드를 즐기며 통영의 자연경관을 감상해 보자. 루지는 지형의 경사와 중력을 이용하는 무동력 바퀴 썰매로, 조작 방법이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액티비티다. 이미 유명한 통영의 스카이라인 루지는 현재 두 개의 트랙, 총 2.1km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말 정 도에는 4개 트랙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출발 지점까지 스카이라인(리프트)도 이동, 쾌속 질주하며 바다-주변 삼-통영시내 풍경을 즐겨보자.
위치 경남 통영시 발개로 178 문의 070-4731-8473 www.skylineuge.com/ko/tongyeong



지금까지 이런 레저 공간은 없었다 **더드림핑**
캠핑도 하고 싶고 물놀이도 가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캠핑, 서핑, 글램핑, 수상레저, 클라이밍 등이 한번에 가능한 레저 놀이터로 떠나보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더드림핑은 북한강변에 위치한 복합레저 공간으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레저와 서바이벌 게임, 실내서핑 등 여름 느낌 물씬 나는 레저를 원 없이 즐길 수 있다. 6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에 따라 서버 패키지도 운영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위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630-18 문의 031-595-2345 thedreamping.com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와 공존하는 법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기업 강에서 나오는 공통 고민거리 1위가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겹치면 욕하고 무시로 감정을 자극하며 무시하는 동료, 교묘하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팀원,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동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메모지를 꺼내서 받는 월급의 70%를 계산해 보세요. '월급의 70%=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와 함께 일하는 대가'로 생각하면 참을 만하지 않나요? 저는 월급의 70%를 계산해서 가고 싶은 곳, 사고 싶은 것을 적은 리스트를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생각만으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죠. 그때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를 떠올립니다. 월급은 '그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는 대가'로 회사가 나에게 주는 돈이니 오늘도 잘 지내보자! 결심하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감정에 대처하기도 쉬워지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할 수 없는 동료와 잘 지내기 위해 스트레스 및 자신의 정서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대처법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 알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처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동료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지만, 그만둘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처 방법이 '회피 또는 회피 갈등'입니다.

- ▶ 회피: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면 좋겠다.
- ▶ 회피 갈등: 성격이 변해서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거나 회피 갈등이 일어날 땐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 어느 회사나 재수 없는 팀원은 당연히 있다.
-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
- 동료와 잘 지내며 일하는 게 내 월급의 70%다.
- 월급의 70%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다!



스스로 바뀌는 것 말고 없나요? 네, 결국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스트레스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Coping)'하는 방법입니다.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갑자기 천사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는 '정서 중심적 대처'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막 대하는 사람 대처법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기'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물론 내가 잘못된 게 있어 상대가 화를 내는 경우라면 다릅니다. 이유 있는 비난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상대가 이유 없이 화낼 때는 참기만 하면 안돼요. 특히 계속 얼굴 보며 일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보수집-전략-전술'을 짜야 합니다.

1 정보수집 단계: 우선 듣기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유용한 시간입니다. 화를 내든 말든 무조건 참고 들으세요. 화내는 이유와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도 말하다 보면 자신의 빈약한 논리를 스스로 깨닫고 민망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2 전략 단계: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기

"아, 그래서 화가 나셨군요"와 같이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 화내기를 멈출 가능성이 큼니다. 공감 받았기 때문에 안도하는 거죠.

3 전술 단계: 자신의 감정 말하기

"왜 화를 내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심정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에게 '내 감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감정'도 생각해 보라고 되묻는 거죠.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면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괴팍한 성질'을 들켜서 민망한데, 그 감정을 덮기 위해 더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상대할 가치가 없는 '꼴통'입니다. 겹치면 화내는 사람, 들어주고 공감해줬더니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자기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료고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런 걸 다 참고 일하는 심리적 위로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요. "월급의 70%가 참는 대가"로 생각하면 상처받는 일이 적어집니다. 협력해서 일만 하면 되지 정서적인 관계까지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웃는 용기 내기

"저는 사람을 사귄 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어요.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칼럼 후 한 분이 메일로 고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타인과 금방 친해지고 잘 지내는 사람들을 관찰했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고 믿고, 먼저 다가가기'였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를 대할 때 표정이 굳어버리고 눈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근육도 경직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말할 수도 더 많이 하게 되죠. 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긴장이 이완되고 더 많이 웃으며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거절 당할까봐 두려워 마세요! 상대와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웃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결국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민상담소

근근슬쩍 일을 떠넘기는 팀원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업무하다 보면 그의 소모품같이 느껴져 불쾌합니다. 어떻게 해야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팀이건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자꾸 참으면 상대는 나를 '원래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다른 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참지 말고 지혜롭게 화를 내세요. '그 일은 저보다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 잘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의 일을 미루는 거니까 칭찬을 가장한 거절을 하세요. 도저히 말 못 할 상황이라면 팀장에게 고민을 말하고 도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동료는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저도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팀원과 함께 있으려니 피곤합니다. 또한 뒷담화를 즐겨 하는 편이라 같이 있기 불편해요.

우리는 소문을 만드는 자와 전하는 자의 말을 들으며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

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개인의 생활에 관계된 것이라면, 더욱!) **2** 소문을 전하는 주체와 소문 속 주인공과의 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들으세요. **3** 동조하는 말이나 리액션은 하지 마세요. 같이 험담한 사람으로 소문 날 수 있어요. 소문을 내는 주체가 '상습범'이라면 한 번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거나 하니? 너나 잘해!' 라는 메시지를 완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있군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선배가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들은 것이라고 얼버무릴 것이 다) 아, 들으신 거구나. 사실이 아니라

면 사람들이 당할 역풍이 크겠는데요?" 매우 격정스러운 표정까지 연출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소문을 전하는 듣는 순간, 나를 '재수 없어'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에 대한 소문을 낼 때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을 테니까요. 역술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침착해야 합니다. 흥분해서 '사실'을 무기로 저항해 봤자 소문만 더 무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에 능한 험담쟁이들을 말로 이기기는 쉽지 않죠. **2** 세상은 늘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토록 흥분하는 것은 소문이 사실

이기 때문'이라는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3** 지혜로운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전략을 세우세요. 무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소문의 악의성이 도를 넘어 서서 사실 입증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나와 소문을 만들어낸 주체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세요.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자 오해 많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박상미 교수에게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고민은 익명으로 소개됩니다. news@hdec.co.kr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막례&PD 김유라 “뒤집어져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없어!”

피플 인사이트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막례’가 된 한국의 여성,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며 3남매를 홀로 키운 박막례의 인생은 유튜브를 통해 ‘뒤집어졌다’. 박막례를 추종하는 ‘편’들은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의 표지부터 열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할 수 있다(We can do it)!’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 사진에서 전쟁같이 살아온 한 사람의 삶과 그를 담아내려 애쓴 손녀의 모습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박막례 작가의 말은 맞춤법을 따르기보다 입말을 그대로 실었다.) 글=정의정 <채널네스> 기자/사진=한정구(HAN JUNGKU Studio)



어느 날 ‘치고 들렀다 시장 갈 때 메이크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졌다. “머리카락 묻지 않게 잘 발라주세요” “머리카락 묻으면 그냥 쓱쓱 문질러 버려 그냥” “주름살이 적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등 박막례의 가감 없는 말투는 유튜브 시장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았다. 10대와 20대가 관을 주도하는 유튜브에서 박막례는 ‘편’을 ‘편’으로, ‘크리쉬’를 ‘후라시’로 발음하면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60대 이상의 삶을 가감 없이 보여줘 그야말로 시청자를 울리고 웃겼다. 이후 유튜브에는 할머니 크리에이터, 할아버지 크리에이터가 늘어났다. 모두 ‘박막례 할머니 Korea Grandma’ 채널 덕분이다.

박막례를 유튜브 대스타로 만든 데는 손녀 김유라의 역할이 컸다. 편(편)들은 김유라를 ‘천재 PD’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박막례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콘텐츠를 기획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칭찬의 의미다. 모든 연령대에 통하는 김유라 PD의 콘텐츠는 유튜브 사장인 수잔 보이차키와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에게까지 전달되어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할머니의 인생을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김유라 하이라이트만 잡아서 쓰는 데도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일부러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남아 있는 기억을 다 이야기해 보시라 했는데, 학교도 못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일만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저도 쓰면서 복장이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았고, 할머니가 그걸 다 견디고 사셨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살아온 인생이 쪽 나와요. 기억을 떠올리는 게 힘들진 않았어요?

박막례 유라가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해보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살아온 것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이나 쓰면 미리 다 써놓으면 되는데, 앉혀 놓고 이야기하니까 돌아켜 보니 힘들었던 내용은 빼먹고 말 안 했네 싶더라고요. 딸이 그라 안 해도 엄마가 고생한 것은 엄마랑 엄마 자식들만 알고 있지 전 세계 사람에게 다 알리라고 뭐라 했었는디. 굳이 굳이 다 말해야, 그리고 안 한 말도 있었어요.

유튜브 계명명이 ‘코리아 그랜마(Korea Grandma)’예요. 외국에서도 보기 쉽다 싶었어요.

김유라 ‘박막례’가 영어로 쓰면 어렵잖아요. 유튜브가 우리나라 기반이 아니다 보니 계정을 한글로 만들면 앞뒤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볼 거라는 생각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할머니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영어 이름으로 써야 예쁘게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youtube.com/koreagrandma 인스타그램 @korea_grandma / 손녀딸 인스타그램 @newrara



“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 북 치고 장구 치고 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여
”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영상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만들게 된 재미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김유라 할머니의 의외성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리액션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할머니는 당연하게 모르고, 이런 것들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유튜브상에서 매력 있는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박막례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편집이나 기획 능력이 많이 이야기 해요.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김유라 저는 할머니가 너무 웃겨요. 엔터테인먼트 방송보다 더 재미있어서 당당하게 채널의 카테고리를 다큐멘터리, 시사가 아닌 코미디로 해놨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재미인 것 같아요. 저도 재밌으니까 만드는 거지 이걸 통해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모든 연령의 세대가 재밌게 보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생각은 하고 있죠. 절대 조회수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걸 찍지 말자, 그것만큼은 제가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이야기도 하셨지만, 팬이 늘어나면서 영향력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유라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사용 영상(‘막례

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 편)은 처음으로 영향력을 고민하고 만든 영상이었어요. 노인들이 키오스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할머니는 거기 해당되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맞아, 나 기차표 못 끊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작가님도 유튜브를 하면서 할머니와 더 친해지고, 할머니 세대를 만나면서 그 세대를 이해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김유라 늙어가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늘 20대가 주인공인 것 같고 저는 그들의 백그라운드 같은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를 보니까 70대가 되어도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공유해야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할머니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많은데, 이걸 해소하려면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몰라서 행동을 못 하는 게 많아요. 할머니도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아시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말하면 ‘염병하네’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조심하고 노력하시는 걸 보면 감동적이에요. 이래서 할머니가 사랑받는구나 느끼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할머니가 즐겁게 살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소설 한 권 읽고 떠나는 문학기행 혼자 떠나도 좋은 '춘천 김유정 문학촌'

여행에서 만난 인문학 서울에서도 가깝게 다녀올 수 있는 춘천.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하철까지 연결되면서 여행객들이 부쩍 늘었다. 춘천을 떠올리면 닭갈비와 막국수가 필수 코스이지만 '김유정 문학촌'을 기억하는 방문객도 꽤 많다. 김유정 문학촌은 경춘선 강촌역과 남춘천역 사이에 있는 '김유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글=엄지혜 <채널에스> 기자 / 사진=엄지혜 기자, 김유정 문학촌 제공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작가 김유정(1908~1937).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작품은 수많은 독자에게 읽혔고 춘천 신동면에는 김유정의 이름을 딴 기차역 '김유정역'이 있다. 김유정역은 한국 철도 최초로 역명에 사람 이름을 사용한 역이다. '신남역'이었던 역명을 2004년 12월에 '김유정역'으로 개명했다. 또한 인근의 신남우체국도 2013년에 김유정우체국으로 개명했다. 우체국 명칭에 사람 이름이 붙은 것도 '김유정우체국'이 전국 최초다.

강원 춘천시 신동면 실례길에 자리한 '김유정 문학촌'은 주말이면 남녀노소 방문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2018년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300만 명을 넘었다.

30세 짧은 생을 살고 간 김유정

김유정은 1908년 2월, 2남6녀 중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고 말을 더듬어 늘 소극적이고 과묵했다.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형과 누나의 보살핌으로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서 새롭게 터를 잡으며 재동공립보통학교 졸업,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검정(檢定)으로 입학하고 소설가 안희남과 각별하게 지냈다. 김유정은 1928년, 인간문화재 박녹주의 공연을 처음 보고 열렬히 구애를 했다. 그러나 박녹주에게 거절당하고 고향으로 귀향해 실례마을에서 야학운동을 펼친다.

형의 방탕한 생활로 집안이 몰락한 후, 1933년 서울로 다시 올라간 김유정은 고향의 이야기를 소설화하기 시작한다. 잡지 <제일선>에 '산골나그네'를, <신여성>에 '총각과 맹꽁이'를 발표하고, 1935년 소설 '소나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에 현상모집에 1등으로 당선되면서 작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구인회 후기 동인으로 가입하면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했지만, 폐결핵과 치질이 악화되면서 병마에 시달린다.

김유정은 생의 마지막 해인 1937년 다섯째 누이 유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죽는 날까지 펜을 놓지 못한다. 오랜 벗인

안희남에게 편지 쓰기(필승前. 3.18)를 끝으로 짧았던 삶을 마감한다. 김유정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938년, 삼문사에서 김유정 단편집 『동백꽃』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한지공예, 도자기, 민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김유정 문학촌을 거닐다 보면 두 개의 모형을 만날 수 있다. 김유정의 대표작 '봄·봄'과 '동백꽃'에 나오는 두 장면을 모형물로 만들어놓은 것. 김유정이 1935년에 발표한 '봄·봄'은 순진한 주인공이 마름의 딸 '점순'이와 혼인하기 위해 데릴사위로써 약정된 머슴 노릇을 하며 겪게 되는 일을 그린 작품. 토착적인 정감과 인간의 순진성에 대한 연민이 해학미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백꽃'은 1936년 <조광>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농촌소설'이라는 표제로 농촌의 순박한 처녀-총각이 사랑에 눈뜨가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그렸다. 주인공이 동감내기 처녀 점순이한테 닭싸움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유명한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은 김유정 문학촌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반긴다.

김유정 문학촌 문학전시관에는 김유정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1930년대 농촌 모습, 다종이 인형으로 표현한 '봄·봄'의 명장면, 작품 배경 지도, 구인회 소개, 김유정 추모 활동 등이 소개돼 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김유정의 작품이 수록된 수많은 출간물. 특히 1940년 출간된 소설집 『동백꽃』의 표지에는 빨간 동백꽃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김유정이 '동백꽃'에서 묘사한 빨간 동백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동백꽃'이라 불렀던 노란 '생강나무꽃'이다.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이 점을 모르고 빨간색 동백꽃을 표지 그림으로 사용했다.

김유정 문학촌에서는 현재의 문화해설사에게 김유정의 생과 작품 세계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방문 일주일 전에 김유정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인데, 귀로 듣는 이야기가 훨씬 인상에 남는다. 이외에도 김유정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을 비치한 '김유정 이야기집', 김유정의



작품 '동백꽃'의 아름다운 문장을 공예품으로 접목시킨 '한지공예 체험방' '김유정 소설의 상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도자기 체험방', 실례마을의 풍속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민화 체험방'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사전 신청 필수).

금병산을 뒤로한 실례이야기길

김유정 문학촌을 둘러본 후에는 작품에 나오는 지명을 둘러볼 수 있는 문학 산책로 '실례이야기길'을 거닐어도 좋다. 김유정의 고향이자 다수의 작품 배경이 된 실례마을. 김유정은 실례마을에서 목격한 일을 '산골나그네'의 소재로 삼았고, 마을의 실존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켰다.

'실례(중리)'는 금병산에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마을명이다. '산골나그네' '총각과 맹꽁이' 등에 나오는 들병이들 넘어오던 눈웃음길, '두포전'에 등장하는 금병산 아기장수 전설길, '동백꽃' '산길'에서 볼 수 있는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 등을 만날 수 있다. 실례이야기길에 숨겨진 이야기 16마당을 찾다 보면 김유정 문학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된다.

김유정 문학촌

주소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관람시간 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 오전 9시30분~오후 5시
휴무 월요일 / 1월 1일 / 설날, 추석 당일
입장료 2000원
문의 033-261-4650



계동산책

정갈한 맛과 멋을 그릇 위에 담아내는 한식 다이닝 단상

계동 본사 바로 옆, 맛집 골목 초입에 들어서면 북촌의 분위기와 잘 어울려진 한옥 레스토랑 '단상'이 있다. 지나는 사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볼 정도로 눈길을 끄는 이 공간은 '한식 푸드메이커의 무대'라는 콘셉트 아래 두 운영 팀이 낮과 밤을 나눠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식당'이다. 지난 6월 1일 정식 오픈하며 낮에는 박서완 셰프와 푸디푸리 팀이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정식 메뉴를, 저녁에는 엄선용 셰프와 그의 크루가 와인과 페어링할 수 있는 주반(술과 안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차림)을 선보인다.

점심시간에 단상을 찾은 맛집 탐험단 앞에 라(L.A)갈비 정식, 육회비빔면, 더덕시래기밥, 실감자전, 새로 선보일 속과불고기(가칭)까지 테이블 가득 맛있는 한 상이 차려졌다. 갈빗대에 살점이 두툼하게 붙은 라갈비 정식이 등장하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신선도 높은 고기를 65.1도에서 10시간 수비드(밀폐된 비닐봉지에 담은 음식물을 미지근한 물속에서 오랫동안 데우는 조리법)한 것이 두툼한 두께에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는 비법, 홀그레인 소스와 달걀노른자를 비빈 파채와 함께 한입 가득 넣으면 그 풍미가 금상첨화다.

양구 시래기와 무를 넣어 지은 밥에 아삭하게 구운 더덕과 튀긴 가시리를 얹은 더덕시래기밥은 '정갈하다'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 칼국수 면 위에 생고기 육회와 돼지비계로 고소함을, 루콜라와 파로 시원함을 더한 냉육회비빔면도 신선하다. 대중의 미각 수준이 높은 한식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단상은 집에서 손쉽게 접하지 못하는 재료와 눈과 입을 사로잡는 경험을 그릇에 올려낸다.

전통 한옥 구조에 북유럽 조명과 빈티지 가구가 어울려진, 상추 대신 유채겉절이가 입맛을 돋우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공간 '단상'에서 눈과 입이 즐거운 밥상을 만나보자.



1 전통 한옥과 북유럽 풍 인테리어가 조화로 온 단상 내부, 2 양구 시래기와 아삭한 더덕이 입맛을 돋운다, 3 눈길을 끄는 모던한 외관, 4 대표 메뉴 라갈비 정식과 냉육회비빔면.

단상

주소 서울 중로구 북촌로2길 11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11시~새벽 1시
 (Break Time 오후 5~6시)
 일요일 휴무
 문의 02-741-8333



현대건설 맛집 탐험단 Hyun-Chelin Guide



★★★★★ 양정배 대리 김유리 대리 최성호 사원

라갈비 정식이 대중적이면서도 특색 있어서 많이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주변 식당에 비해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맛있고 양도 많아서 만족스러웠어요. 인테리어와 플레이팅이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고, 북촌의 특색도 담고 있는 만큼 손님들 대접할 때도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 오명석 부장대우 남경민 과장 방도혁 차장

간 조절이나 일부 재료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메뉴의 참신함이나 가게 분위기, 직원 서비스 등 트렌디한 부분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지만 회사 인근에 손님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맛집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매력적입니다.

건설용어 쉽게 배우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설 현장의 핵심

건설 중장비

건설공사에 쓰이는 중량이 큰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건설 중장비'는 인력으로 불가능한 대형공사에 필수다. 어려운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경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의 역할을 하는 건설 중장비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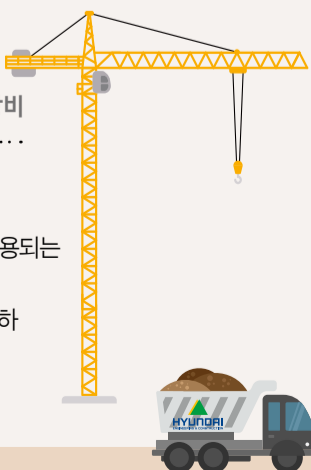
+잠깐!

현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비

타워크레인

(Tower crane)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중기. 갈고리에 자재물을 걸어 상하 전후 및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1 토목장비

흙을 파헤치거나 다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

불도저(Bulldozer)

토목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기종. 흙의 굴착 압도 및 운반 등에 사용.

굴착기(Excavator)

일반적 명칭은 포클레인.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

스크레이퍼(Scraper)

날을 사용해 땅이나 노반을 긁고, 그 파편을 통에 담아 처리.

로더(Loader)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거나, 파낸 것을 처리. 다른 명칭은 굴착기.



2 운반장비

건설 현장의 자재 등을 운반하는 장비

덤프트럭(Dump truck)

동력으로 적재함을 60~70도 기울여 자동으로 내리는 토사·골재 운반용 특수 화물차량.

트럭믹서(Truck mixer)

조합 콘크리트의 운반차. 내장된 반죽 장치로 소정의 속도로 콘크리트를 반죽해 공급.

지게차(Forklift truck)

자재를 쌓거나 트럭에 실기 위해 들어 올리고 옮길 수 있는 동력 수레.



3 포장장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장비

그레이더(Grader)

도로 공사에서 사용되는 굴착기계. 땅을 고르게 하거나 도로 파편 제거.

롤러(Roller)

도로 공사 등에서 지면을 평평하게 다지기 위해 일정한 압력을 가하며 지면 위를 이동.





1 Furniture Galaxy(가구가 반짝이는 푸른 밤).
 2 Green Chicken, 2008, Photography, Courtesy of the Groninger Museum, NL, Photo by Nienke Klunder.
 3 Theatre Hayon, 2018, Ceramics, Courtesy of Bosa.
 4 Crystal passion(보석들이 열대 지방에 간 이유).
 5 Checkmate(트라팔가르의 체스 경기).
 6 Cabinet of Wonders(수상한 캐비닛).
 7 Hayon Shadow Theater(아윤의 그림자 극장).
 8 Dream Catcher(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
 9 Modern Circus & Tribes(아프리카노 가족의 사연).



Jaime Hayon: Serious Fun

하이메 아온, 숨겨진 일곱 가지 사연

대림미술관
 04.17 ~ 11.17

스페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2000년 아온 스튜디오(Hayon Studio) 설립 후 본격적으로 가구, 조명, 생활용품, 장난감, 인테리어,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로 활동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런 하이메 아온의 전시가 국내 최초로 대림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는 평범한 사물에 숨어 있는 판타지를 발견하고 오브제가 주인공이 되어 저마다의 사연을 들려주는 일곱 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디자인, 가구, 회화, 조각, 스케치부터 특별 제작된 대형 설치 작업까지 하이메 아온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업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마치 오브제의 연금술사처럼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고 감정과 상상을 자극하며 뜻밖의 재미를 선사한다. 새롭고 놀라운 하이메 아온의 디자인 세계관과 작품을 엿볼 수 있는 전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현대건설 임직원의 경우 7월 2일부터 14일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SPECIAL COUPON

현대건설 임직원
 무료 입장

7월 2~14일까지
 (사원증 제시 필수, 동반 1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그림웨어게시글 참조

